

하나님의 법: 부록 6: 그리스도인을 위한 금지된 고기들

모든 생물이 음식으로 창조된 것은 아니다

에덴동산: 식물 기반 식단

이 진리는 인류의 시작인 에덴동산을 살펴보면 분명해집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한 정원을 돌보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어떤 종류의 정원이었을까요?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과수원이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기 좋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셨다” (창세기 2:15).

또한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고 돌보는 역할을 맡았다는 기록은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동물들이 나무처럼 “먹기에 좋은” 것으로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동물 섭취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 만약 금지하셨다면, 성경 전체에 걸쳐 명확한 지침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인류의 최초 식단에 동물성 식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인류 초기의 하나님의 공급은 완전히 식물 기반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과일과 다양한 식물 섭취를 강조하셨습니다.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구분

노아 시대에 도입됨

하나님께서 결국 인간이 동물을 죽여 먹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세워졌습니다.

이 구분은 홍수 전에 노아에게 주어진 지침에서 처음으로 암시됩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 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한 쌍씩 데리고 들어가라”(창세기 7:2).

정결한 동물에 대한 암묵적 지식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는 방법을 따로 설명하지 않으신 것은, 그러한 지식이 이미 인류에게 내재되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창조 초기부터 알려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한 인식은 더 넓은 하나님의 질서와 목적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정 생물들이 자연적이고 영적인 구조 안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초기의 정결한 동물 개념

희생 제사와의 관련성

지금까지 창세기의 흐름을 보면, 홍수 이전까지는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구분이 오직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동물과 관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이 자신의 양 떼 중 만배를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이 원칙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자기 양 떼의 만배”(אֶלֶף תְּרוֹמָה)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여기서 “양 떼”(tzon, תְּצֹן)는 보통 양이나 염소 같은 소형 가축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아벨은 자신의 양 떼에서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제물로 드렸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창세기 4:3-5).

노아가 드린 정결한 동물의 제사

마찬가지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에 제단을 쌓고,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던 정결한 동물들을 사용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8:20; 7:2).

이 초창기 단계에서 정결한 동물을 제사에 사용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은, 예배와 언약적 정결성에 있어 이 동물들이 가진 독특한 역할을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해줍니다.

히브리어로 이 두 부류를 나타내는 단어 — **타호르**(טָהוֹר)와 **타메**(טָמֵא) — 는 임의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들은 거룩함과 하나님을 위한 구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 **טָמֵא (타메)**

의미: 부정한, 불결한.

용례: 의식적, 도덕적, 또는 신체적 부정함을 가리킵니다. 주로 섭취나 예배에 금지된 동물, 물건, 행위와 관련됩니다.

예시: “그러나 이것들은 먹지 말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라” (레위기 11:4).

- **טָהוֹר (타호르)**

의미: 정결한, 순수한.

용례: 섭취, 예배, 의식 행위에 적합한 동물, 물건,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시: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할지니라” (레위기 10:10).

이 용어들은 하나님의 식이법의 기초를 이룹니다. 이 법은 이후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며, 어떤 동물은 먹을 수 있고(clean), 어떤 동물은 먹을 수 없는 것(unclean)으로 분류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부정한 고기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

타나크(구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자신의 백성에게 식이법을 어기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특히 부정한 동물의 섭취를 비난하는 구절들이 있으며, 이는 단순한 식생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백성은 내 얼굴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분노하게 한다… 돼지고기를 먹으며, 그릇에는 부정한 고기의 국이 가득하도다” (이사야 65:3-4).

“스스로 거룩하게 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 동산으로 들어가, 돼지고기와 쥐와 그 외에 부정한 것들을 먹는 자들은 그 따르는 자와 함께 끝을 보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66:17).

이 경고들은 부정한 고기를 먹는 것이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실패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히 금지하신 것을 고의로 행하는 것은 거룩함과 순종을 경시하는 태도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과 부정한 고기

예수님의 오심과 기독교의 출현, 그리고 신약성경의 기록 이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의 법, 특히 부정한 음식에 대한 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먹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구약 어디에도 메시아가 아버지의 식이법이나 다른 어떤 계명을 폐지할 것이라는 예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점에서 아버지의 법규를 지키셨고,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돼지고기를 드셨다면, 우리가 그분이 물고기(누가복음 24:41-43)와 어린양(마태복음 26:17-30)을 드신 것을 아는 것처럼, 분명한 본보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식이 규정을 어겼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논박된 주장들

거짓 주장: “예수님이 모든 음식을 정결하게 하셨다”

진실:

마가복음 7:1-23은 종종 예수님께서 부정한 고기에 관한 식이법을 폐지하셨다는 근거로 인용됩니다. 그러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러한 해석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오해되어 인용되는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간다.” (이로써 그는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하셨다)”(마가복음 7:19).

본문의 맥락: 정결한 고기와 부정한 고기에 관한 것이 아님

우선, 이 본문의 맥락은 레위기 11장에서 규정한 정결한 고기와 부정한 고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논쟁에 관한 것으로, 식이법과는 무관한 유대인의 전통에 대한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문제 삼았습니다. 이 의식은 히브리어로 *네틸랏 야다임*(דִּיּוֹת תְּלִיטָה)이라 불리며, 오늘날까지도 정통 유대교 공동체에서 지켜지는 전통적인 손 씻기 의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하나님의 식이법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전통을 지키느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이 의식을 생략한 것을 불결한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 마음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께서서는 마가복음 7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여,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외적인 행위나 전통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임을 가르치십니다. 진정한 부정은 외부의 관습이나 의식을 지키지 않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최악된 생각과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설명하신 것은 식이법을 논한 것이 아니라, 손 씻기 의식과 관련된 전통을 논하신 것입니다. 초점은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내적인 순결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19의 정확한 이해

마가복음 7:19은 성경 출판사들이 본문에 삽입한 괄호 안 주석 때문에 종종 오해됩니다: “이로써 그는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οτι ουκ εισπορευεται αυτου εις την καρδιαν αλλ εις την κοιλιαν και εις τον αφεδρωνα εκπορευεται **καθαριζον παντα τα βρωματα,**”

이는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서,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한다.”

“뒤로 나가면서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한다”는 문장을 “이로써 그는 모든 음식을 정결하게 하셨다”로 번역하는 것은, 신학교와 성경 출판사들 사이에 널리 퍼진 하나님의 법에 대한 편견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골적인 왜곡입니다.

더 자연스러운 해석은, 예수님께서 당시 일상 언어로 음식 섭취 과정을 설명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소화 과정에서 음식은 몸에 필요한 영양소(정결한 부분)는 흡수되고, 나머지는 배설물로 버려집니다.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은 아마 이 자연스러운 소화 과정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거짓 주장에 대한 결론

마가복음 7:1-23은 하나님의 식이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다룬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이 외적 의식을 내면의 진실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거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진정한 부정은 외적인 의식을 지키지 않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주장은 본문의 맥락과 헬라어 원문을 무시한 오해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법에 대한 편견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본문과 원어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토라의 가르침을 존중하셨고, 하나님의 식이법을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거짓 주장: “환상 중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모든 동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진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의 환상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에 관한 식이법을 폐지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맥락과 환상의 목적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환상이 정결한 고기와 부정한 고기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폐지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오히려 이 환상은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받아들이라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의 식이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환상과 그 목적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큰 보자기 안에 온갖 종류의 동물들 —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모두 — 을 보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잡아먹으라”는 명령이 들립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즉각적인 반응은

매우 분명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사도행전 10:14).

이 반응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 베드로가 여전히 식이법을 지켰다는 사실

이 환상은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 중에 식이법을 폐지하셨다면,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인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을 것이며, 이렇게 강력히 거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정한 동물의 고기를 거부한 것은, 그가 여전히 식이법을 지키고 있었으며, 식이법이 폐지되었다는 개념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 환상의 실제 메시지

이 환상은 세 번 반복되며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의미는 곧 이어지는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 분명해집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면서 환상의 뜻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람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보여주셨습니다”(사도행전 10:28).

이 환상은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제거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식이법 폐지” 주장의 논리적 모순

베드로의 환상이 식이법 폐지를 의미한다는 주장은 여러 중요한 점들을 무시합니다:

1. 베드로의 초기 저항

만약 식이법이 이미 폐지되었다면, 베드로가 강하게 반대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반응은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식이법을 따르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2. 식이법 폐지에 대한 성경적 근거 없음

사도행전 10장 어디에도 식이법이 폐지되었다는 명시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본문의 초점은 오직 이방인들의 수용에 있으며,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재정의가 아닙니다.

3. 환상의 상징성

환상의 진정한 의미는 그 적용에서 분명해집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그를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10:34-35). 이는 편견을 허무는 메시지이지, 식이 규정을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4. 해석상의 모순

만약 이 환상이 식이법 폐지를 의미한다면, 이는 사도행전 전체의 맥락과 모순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유대인 신자들, 심지어 베드로 자신도 계속해서 토라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환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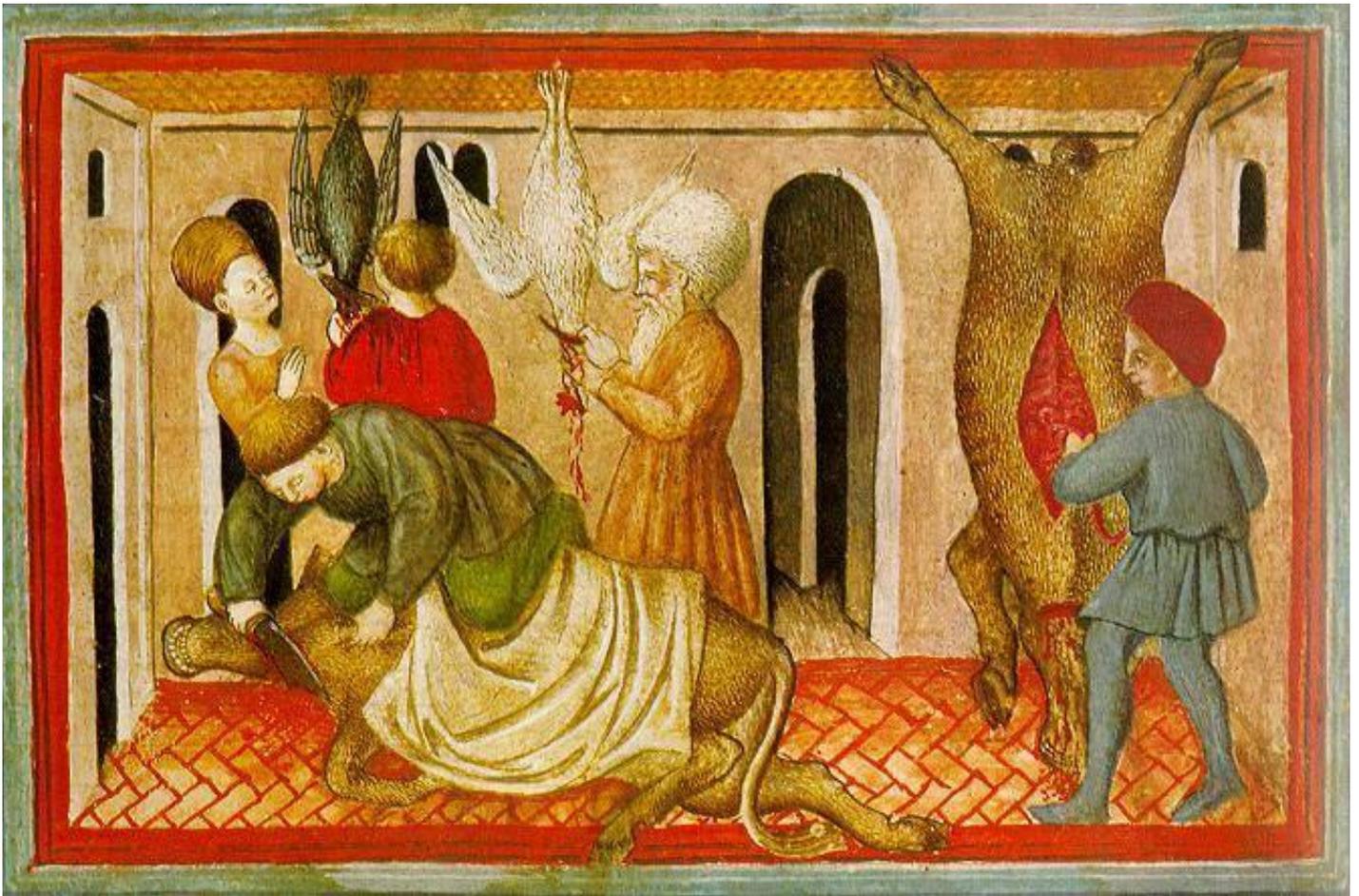
단순히 식이법을 다루는 것이라면, 그 상징적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본문의 핵심은 이방인 수용이라는 더 큰 주제에 있습니다.

이 거짓 주장에 대한 결론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본 환상은 음식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것과 부정할 것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복음이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임을, 그리고 이방인들도 더 이상 부정하거나 제외된 존재가 아님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환상을 하나님의 식이법 철폐로 해석하는 것은 본문의 맥락과 목적 모두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식이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 환상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민족 간 장벽을 허무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의 행동과 설명이 이를 명확히 확인해 줍니다.



성경이 규정한 피를 제거하는 규정에 따라 모든 정결한 짐승, 새, 육상 동물의 고기를 준비하는 정육점 장인들의 고풍스러운 그림.

거짓 주장: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은 목 졸라 죽인 고기나 피만 먹지 않으면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고 결정했다”

진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는 종종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대부분의 계명을 무시할 자유를 주고 네 가지 기본 요구사항만 지키게 했다고 잘못 해석됩니다. 그러나 본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회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초기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에 이방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결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핵심은 무엇이었나?

회의에서 다룬 주요 질문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초기 메시아닉 회중 모임에 참여하기 전에, 할례를 포함한 모든 토라(율법)를 완전히 지켜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유대 전통에서는, 이방인이 유대인과 자유롭게 교제하려면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식이법을 따르며, 기타 율법들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참조: 마태복음 10:5-6; 요한복음 4:9; 사도행전 10:28). 그러나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들이 처음부터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조화를 위한 네 가지 초기 요구사항

회의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피하는 조건으로, 이방인들도 회중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5:20):

1. **우상에게 바친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 것. 이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심각한 모욕이었기 때문입니다.
2. **성적 부도덕:** 이방 종교의 일반적 관행이었던 성적 죄악을 삼갈 것.
3. **목 졸라 죽인 동물의 고기:** 피가 제거되지 않은 동물을 먹지 말 것. 이는 하나님의 식이법에 어긋납니다.
4. **피:** 피를 섭취하지 말 것. 이는 토라에서 명백히 금지된 행위입니다 (레위기 17:10-12).

이 요구사항들은 이방인들이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평화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의미하지 않은 것

이 네 가지 요구사항만 지키면 이방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해석입니다.

- 이방인들은 십계명을 어겨도 괜찮았는가?

-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거나, 도둑질하거나, 살인해도 괜찮았는가? 물론 아닙니다. 그런 결론은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대와 모순됩니다.

- **출발점이지, 최종 목표가 아니다:**

- 회의의 결정은 이방인들이 메시아닉 유대인 회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장의 필요를 해결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들이 지식과 순종에서 자라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21이 제공하는 명확성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은 사도행전 15:21에서 명확히 드러냅니다:

“모세의 율법은 옛날부터 각 성읍에서 전파되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방인들이 회당에 참석하여 토라를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배워 나갈 것임을 보여줍니다. 회의는 하나님의 계명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용적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보는 문맥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계명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9:17, 누가복음 11:28, 그리고 산상수훈 전체(마태복음 5-7장)에서 예수님은 살인, 간음, 이웃 사랑 등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함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신앙의 기초였으며, 사도들에 의해 폐지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주장에 대한 결론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들에게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고 선언하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도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회의는 단지, 이방인들이 모든 토라의 조항을 즉각 따르지 않고도 메시아닉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네 가지 요구사항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이는 회중 안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낭독되는 토라를 통해 점차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순종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회의의 목적을 왜곡하고 성경의 더 넓은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거짓 주장: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필요를 취소하셨다고 가르쳤다”

진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 어쩌면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했으며 이방인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라고 가르쳤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해석은 신학적 혼란을 초래해 왔습니다.

이 견해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바울의 글을 둘러싼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으며, 바울이 율법과 구원에 관해 오해받았거나 문맥에서 벗어나 해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역은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왜 바울을 해명하려는 접근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바울의 율법에 대한 입장을 해명하기 위해 지나치게 애쓰는 것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모독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울이라는 한 인간을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심지어 예수님과 동등하거나 더 높은 지위에 올려놓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신학적 접근은, 바울 이전의 성경에서 누군가가 예수님 이후에 나타나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하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중요한 예언이 있었다면,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을 신적 권위를 가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예언의 부재

실제로, 성경에는 바울이나 그 밖의 어떤 인물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는 메시지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예언되어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레 요한:**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의 역할이 예언되었고 예수님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참조: 이사야 40:3; 말라기 4:5-6; 마태복음 11:14).
2. **가롯 유다:** 시편 41:9과 시편 69:25 같은 구절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됩니다.
3.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사야 53:9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사람으로 간접적으로 암시됩니다.

이 인물들 외에, 특히 다소 출신의 어떤 인물이 하나님의 계명을 폐지하거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칠 것이라는 예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 후에 예언하신 것들

예수님께서서는 지상 사역을 마치신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여러 가지 예언을 하셨습니다:

- **성전의 파괴** (마태복음 24:2).
- **제자들에 대한 박해** (요한복음 15:20, 마태복음 10:22).
-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됨** (마태복음 24:14).

그러나 다소 출신의 인물, 특히 바울에게 구원과 순종에 관한 새로운 교리나 반대 교리를 가르칠 권한이 주어질 것이라는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바울 서신의 진정한 시험 기준

이는 우리가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서신을 무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서신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그 해석이 반드시 다음의 기초 위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구약성경:**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한 계시.
2. **사복음서:**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어떤 해석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거짓 주장에 대한 결론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 특히 식이 규정을 폐지했다고 가르쳤다는 주장은 성경에 의해 지지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예언한 성경 구절은 존재하지 않으며, 예수님 자신도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에 비추어 철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메시아를 따르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계시하신 것에 일치하려고 힘써야 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명을 거스르는 해석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과 본보기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와 아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준비가 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 비록 친구, 교회, 가족으로부터 반대를 받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머리카락과 수염, 치치트, 할례, 안식일, 그리고 금지된 고기에 관한 계명들은 거의 모든 기독교에서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중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한 자들은 **반드시 박해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신 바입니다 (마태복음 5:1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용기를 요구하지만, 그 보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금지된 고기



네 마리 동물의 발굽 모양 – 일부는 갈라져 있고 일부는 단단하여 – 레위기 11장에 따른 성경의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규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식이법은 토라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며, 어떤 동물은 먹을 수 있고 어떤 동물은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들은 거룩함, 순종, 그리고 부정하게 하는 관습으로부터의 구별을 강조합니다.

아래는 성경 구절과 함께 정리한 금지된 고기들의 구체적이고 설명적인 목록입니다.

1. 되새김질하지 않거나 굽이 갈라지지 않은 육상 동물

- 되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특징 중 하나라도 없는 동물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금지된 동물의 예시:
 - 낙타 (가말, למָא) -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음 (레위기 11:4).
 - 말 (수스, סוּס) - 되새김질도 하지 않고 굽도 갈라지지 않음.
 - 돼지 (하지르, חֵזִיר) - 굽은 갈라졌으나 되새김질하지 않음 (레위기 11:7).

2.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수생 생물

- 지느러미와 비늘을 모두 갖춘 물고기만 먹을 수 있으며, 둘 중 하나라도 없는 생물은 부정합니다.
- **금지된 생물의 예시:**
 - 메기 - 비늘이 없음.
 - 조개류 - 새우, 게, 바닷가재, 조개 등을 포함.
 - 뱀장어 - 지느러미와 비늘 모두 없음.
 - 오징어와 문어 - 지느러미도 비늘도 없음 (레위기 11:9-12).

3. 맹금류, 청소동물 및 기타 금지된 새들

- 율법은 보통 육식성이나 청소 행동을 하는 새들을 먹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금지된 새의 예시:**
 - 독수리 (네세르, נָשֹׂר) (레위기 11:13).
 - 대머리수리 (다아, חָמֵץ) (레위기 11:14).
 - 까마귀 (오레브, עֹרֵב) (레위기 11:15).
 - 부엉이, 매, 가마우지 등 (레위기 11:16-19).

4. 네 발로 걷는 날아다니는 곤충들

-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걷는 곤충은 일반적으로 부정하나, 뛰기 위한 관절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금지된 곤충의 예시:**
 - 파리, 모기, 딱정벌레.
 - 메뚜기와 방아깨비는 예외로 허용됨 (레위기 11:20-23).

5. 땅을 기어 다니는 동물들

- 배로 기어다니거나 다리가 많아 땅을 기어다니는 생물은 모두 부정합니다.
- **금지된 생물의 예시:**
 - 뱀.
 - 도마뱀.
 - 쥐와 두더지 (레위기 11:29-30, 11:41-42).

6. 죽었거나 썩은 동물

- 정결한 동물이라도 자연사했거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사체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 **참조:** 레위기 11:39-40, 출애굽기 22:31.

7. 이종 교배

- 직접적인 식이 규정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종류를 교배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식품 생산에서도 주의를 요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 **참조:** 레위기 19:19.

이러한 명령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며, 식생활조차 하나님을 존중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순종과 경외의 표현입니다.